

光州日熙





음력 8월 22일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9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DJ센터 2전시장 '미적'… 광주 마이스 산업 '흔들'

광주, 공사비 급등 여파로 미래 산업 핵심 인프라 5년째 건립 지연 전북 전주에 컨벤션 센터 착공·충북 오송에 개관·충남 천안에도 추진 호남·충청권 마이스 산업 재편…대형 전시·국제회의 선점 나서야

'마이스(MICE) 중심도시 광주'의 핵심 인프라 로 꼽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이 5 년째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주시가 최근 3000억원 규모 전주컨벤션센터 를 착공하는 등 호남권 MICE 산업이 재편되는 상 황에서 개관 20주년을 맞은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제2전시장 일정이 더 늦어지면 대형 전시・국제회 의의 선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05년 9월 6일 문을 열어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호남권 최초의 국제 전시·회의 복합시설 로, 지난 20년간 1만여 건의 크고 작은 산업전, 국 제회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광주 MICE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호남권에서 선제적으로 전시컨벤션 산 업을 주도해왔음에도 공간 한계와 시설 노후, 제2 전시장 건립 지연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 김대중컨벤션센터 2전시장은 당초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 2전시장은 광주시가 호남권 최대 규모 국제 행사 유치를 내세우며, 현재 주차장 부지 1만8932 ㎡에 총 사업비 1461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4만6000㎡ 규모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설계 용역이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중단됐다.

자재・인건비 폭등으로 기존 예산의 2배에 달하 는 3000억원까지 건립비가 치솟는 바람에 까다로 운 정부의 중앙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 보조와 광주시 자체 부담, 민간 참여 등 다 양한 예산 조달 방안을 모색 중이나 2024년부터 급등한 글로벌 원자재・노무비 상승이 현실의 벽이

광주에서 제2전시장 건립이 차질을 빚는 동안 서울 코엑스와 킨텍스(고양), 부산 벡스코, 대

조대부고 2025 조대부고인 어울림 한마딩

- **일시: 2025. 10. 19(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조성래

마이스(MICE) 산업 회의(Meeting),인센티브관광(Incentive

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 합 서비스 산업으로 단순 관광을 넘어 전문 비즈니 스, 정보 교류, 도시 브랜드 가치 극대화와 지역 경 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MICE 산업은 지역과 국가 전략산업으로 각광받

으며, 시설·인프라·기획력 확보와 글로벌 유치경

구 엑스코 등 주요 시설은 지속적인 증축과 현대 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 17개의 전시・ 컨벤션센터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실정

특히 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관광거점 육성을 내걸고 2028년 완공 목표로 대형 컨벤션센 터 건립에 착수했다.

1만㎡ 전시장과 2000석 대회의실 등 복합단지 를 조성하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403억 원), AI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공간 'G -타운' 등 연계 사업까지 동시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청주 오송에 '오송컨벤션'이 2025년 개 관을 했고, 천안에도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2027년 개관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센터 2전시장이 지연될 수 록 경쟁력을 잃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대 중센터의 가동률은 55~70%를 오가는 등 들쭉날

전문가들은 "광주 전시 인프라 확충이 장기적으 로 지연되면 '마이스 한류'의 허브에서 영원한 지 역 시설로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전주 등 컨벤션 센터를 보유한 도시들과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김대중컨벤션센터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하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개 관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천변길 가로수 미국흰불나방에 고사 ▶6면

무등기 사회인야구 4강 진출팀 확정 ▶18면

K출판 세계로 도약 - 광주 지역출판 정책 ▶22면



'노을 맛집' 광주 서창 감성조망대

11일 광주시 서구 서창들녘 인근 영산강변 '감성조망대'에서 시민들이 노을이 번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지난 1일 문을 연 조망대는 영산강변 황혼·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 명소가 될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고문·사망 '공동 부검'

한국 경찰・캄보디아 당국 양국 수사기관 강력 대응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사 건과 관련해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 부 검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본청 과학수사 대와 함께 이달 중 캄보디아 현지에서 공동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신 인도와 장례는 현지 수사 절차가 끝난 뒤에 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캄보디아 경찰은 부검 전 검안에서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기재했 으나, 한국 경찰은 단순 검시로는 사인을 확정할 수 없다며 정식 부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동 부검은 일정과 절차를 현지 기관과 조율해 한 국 수사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숨진 대학생 A (20대)씨는 지난 7월 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고,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시신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1 명을 지난달 구속 송치했으며, 두 사람은 사회에

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 거래와 통신 기록을 토대로 상선 조직 등 배후를 추적 중

대포통장 범죄 연루 피해자가 현지에서 장기간 억류됐다가 사망에 이른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의학적 소견과 디지털 증거 분석을 종 합해 사망 전후 경위를 복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 지 검안서에 적시된 표현의 정확성과 적용 근거, 외상 흔적 유무 등을 재확인해 폭력 개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검 결과와 수사 내용 은 양국 수사기관이 공유해 후속 절차에 반영한 다.

한편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 B 씨 등 30~40대 중국인 3명을 살인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8월 8일 오전 2시께 검은색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서 중국인 2 명이 체포됐으며 이후 보코산 인근 빌라 급습으로 30대 공범 1명이 추가 검거됐다.

A씨 가족은 조선족 말투의 협박범에게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받아 국내 경찰과 외교부에 신 고했지만, 캄보디아 내무부는 유가족의 공식 요청 접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잔여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자영업 대출 2분기 1069조 영세층 연체 12년만에 최고

정치 혼란과 소비 부진 속 자영업자 대출이 2분 기 말 1069조 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 다. 특히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취약층 중심의 금융 리스크 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 황'에 따르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분기 대비 2조원 늘었다.

구성은 사업자대출 723조 3000억원, 가계대출 346조 3000억원으로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다. 다중채무 잔액은 750조 5000억원으로 줄었지 만 차주 수 감소로 1인당 평균 4억 3000만원은 4

전체 연체액은 19조원, 연체율 1.78%로 소폭 개선됐으나 저소득층은 대출이 141조 3000억원, 연체율이 2.07%로 악화됐다.



